

* 수기 작성 가이드라인 *

1. 각 항목당 텍스트와 함께 **사진 5 장 이상**을 넣어주세요.
※ 가능한 사진은 해당 항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운 경우 일상 사진으로 대체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2. 전체 후기 기준, 본인이 나온 사진(뒷모습도 무방)은 1 개 이상 포함해주세요.
3. 각 사진에는 **사진의 설명**을 함께 간단히 기재해주시고 빨간색으로 기재된 **세부안내가이드**는 삭제 후 제출해주세요.
4.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은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무성의한 후기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ㅠ)**

[취업자 정보]

성명	박준병
대학/ 전공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연수 과정명	미국 경영지원 실무행정 인력 양성과정 6 기
미국 입국일	2019. 09. 15.
근무 회사명(지역)/ 근무 포지션	YS Health (Cypress) / Business administration

1. 인턴십 지원동기 및 ICN 을 알게 된 계기

[ICN 을 알게 된 계기]

처음 ICN 을 알게 된 계기는 친구(조원희, 박동건)와 같이 해외취업박람회를 갔을 때 입니다. 친구들은 이미 ICN 을 통해 해외 인턴십을 갔다왔었습니다. 해외 인턴십을 가서 많은 경험을 했고 정말 좋았다며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에서 최미나 차장님께 상담을 받고 더욱 더 많은 관심이 가게되었습니다. 학교 교양 수업 중 해외취업관련강의를 듣고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있던 저에게 최미나 차장님의 상담과 원희와 동건이의 추천과 얘기들은 저에게 많은 동기와 계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국 경영지원 실무행정 인력 양성과정 6 기를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많은 경험을 하고싶다는 생각과 경험을 하고나서 주변 친구 or 동생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서 망설임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인턴십 지원 동기]

처음엔 해외취업이라는 말은 정말 다른 사람, 소위 말하는 엘리트분들의 코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해외취업관련 과목을 수강하게되었는데, 그때 해외취업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k-move 등 정부 지원 사업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중 2 명이 K-move 사업을 통해 1 년동안 미국으로

해외 인턴십을 갔다왔는데 그만큼 느끼는 점도 많고 정말 좋은 기회였었다, 너도 가능하면 갔다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며 적극 추천해주며 많은 정보들을 알려줘서 저 역시 꿈을 키웠고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최종 출국 전까지 진행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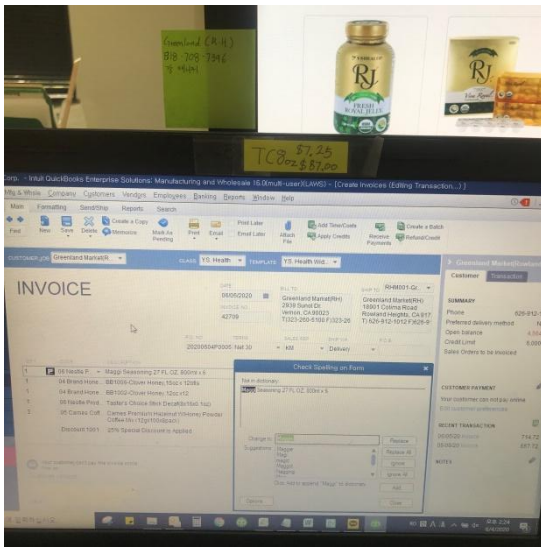
최종 출국 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ICN 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영어는 하나도 몰랐던 저였기에 정말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을 해외로 취업하게끔 도와준 ICN 이기에 많은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698 시간의 어학 및 직무 수업을 들었습니다. 특히 여름 방학 기간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표가 정말 힘들었지만 많은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도와준 ICN 의 노하우와 경험을 믿고 열심히 따른 결과 고용주 면접, 스폰서 면접 그리고 비자 면접까지 한번에 합격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국 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케어를 해주는 ICN 덕분에 현재까지 안전하고 재미있는 미국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3.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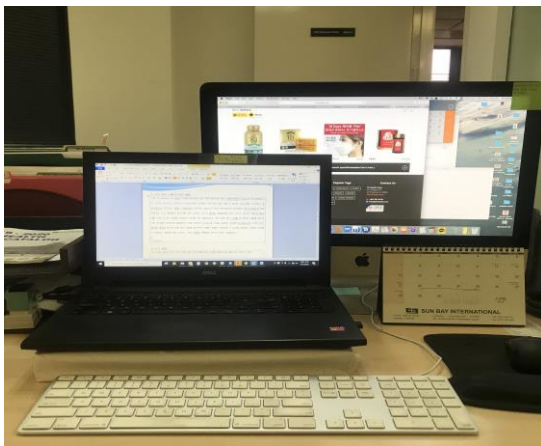
저희 YS Health 는 LA 카운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오렌지카운티 Cypress 에 위치해있습니다. 시카고 본사에서 근무하느냐, LA 지사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LA 지사에는 지사장님, 세일즈팀장님, 창고장님, 세일즈 직원분들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턴사원으로 한인마켓, 인터네셔널마켓 등에 판매되는 여러 제품들의 발주서를 넣는 업무와 LA 지사 홀세일 판매일정에 따라 시카고 본사의 구매/생산팀과 제품 수량 및 생산 일정을 조율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또한 저희 창고 스케줄 및 재고의 상황에 맞추어 저희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의 P.O 를 작성하여 Vendor 에 P.O 를 주문하는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월간별 세일즈 분석과 제품 재고 현황을 확인하여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하는 역할과 이외에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인보이스 작성, 마켓별 판매대금 정산의 업무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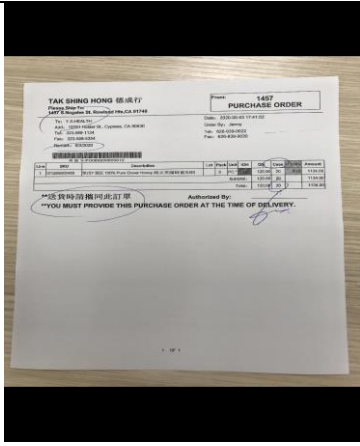
[회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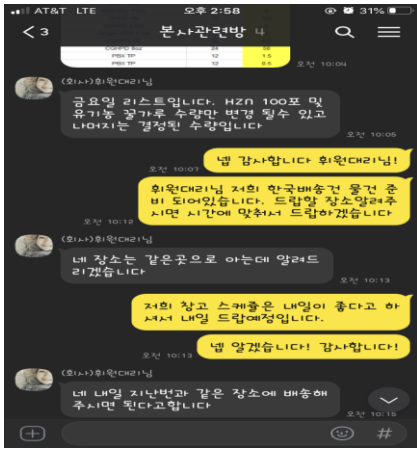
[업무 중 하나인 인보이스를 만드는 중]



[제 사무실 자리]



[인터네셔널 마켓에서 온 P.O 를 확인하고 인보이스 작업]



[본사 직원분과 단체톡방에서 업무를 하는 사진]

4. 미국 생활

저희 회사는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회사업무 후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회사업무를 마친 후 일주일에 3번정도 꾸준히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가격은 월 \$10 정도로 한국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매주 화/목요일은 Language Exchange Meetup 에 나가 외국친구들과 함께 영어 공부와 간단한 음주가무를 즐겼습니다. 주말에는 여기서 만난 한국친구들, 외국친구들과 함께 하이킹, 캠핑, 비치발리볼, 수영, 하우스파티, 샌디에고와 같이 조금 먼 동네로 여행 등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정말 좋고 자연 경관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네라 공원에서 돛자리 깔고 앉아 Netflix 나 유튜브를 통해 미국 드라마 혹은 재밌는 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즘엔 코로나때문에 많이 못돌아다니고 활동이 제한적이지만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Shut down 이 풀리면 월요일 하루 월차를 내서 금요일 퇴근 후 ~ 월요일까지

그랜드 캐니언과 라스베가스에도 갈 예정입니다.



[게티센터]



[그리피스 천문대]



[더 라스트 북스토어]

5. 현지 생활 비용을 적어주세요.(1 개월 기준)

내역	금액(달러 기준)
집 세	\$ 700
차량유지비	약 \$ 200
식 대	약 \$ 500
핸드폰 요금	\$ 54
합계	약 \$ 1,500

6.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해외 취업 추천의 가장 큰 이유는 현지 생활을 몸으로 직접 느낀다는 점 같습니다. 일하며 수입이 생기고 이러한 수입을 활용해서 현지의 생활과 문화를 즐기고 덤으로 어학공부까지 가능하니 1 석 3 조의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해외경험이고 첫 독립이어서 정말 많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이쁜 지역이 많지만 해외 유명 지역을 방문하고 생활을 느끼면서 건문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해외취업은 지금까지 했던 경험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할리우드 사진]



[샌디에고]

7.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개인성향 혹은 경제관념차이에 따라 미국에서의 인턴십 기간이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고 혹은 시간낭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 만큼 멋진 미국생활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어딜 가더라도 처음 기대했던 것 만큼 대단하고 멋진 일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으로서 굉장히 사소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타지에서의 생활이 생각만큼 잘 안되고 힘든 나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개인의 만족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으로 오게 될 인턴분들은 좀 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 제가하는 것보다 2 배 3 배 더 즐기고 만족하는 미국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타 모니카]



[다운타운 디즈니]



[산타 바바라]

8. 미국 근무기간 동안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성실한 후기 작성 감사합니다.

미국 취업을 통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수기 작성 가이드라인 *

1. 각 항목당 텍스트와 함께 **사진 5 장 이상**을 넣어주세요.
 ※ 가능한 사진은 해당 항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어려운 경우 일상 사진으로 대체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2. 전체 후기 기준, 본인이 나온 사진(뒷모습도 무방)은 1 개 이상 포함해주세요.
3. 각 사진에는 **사진의 설명**을 함께 간단히 기재해주시고 빨간색으로 기재된 **세부안내가이드**는 삭제 후 제출해주세요.
4.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은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무성의한 후기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TT)**

[취업자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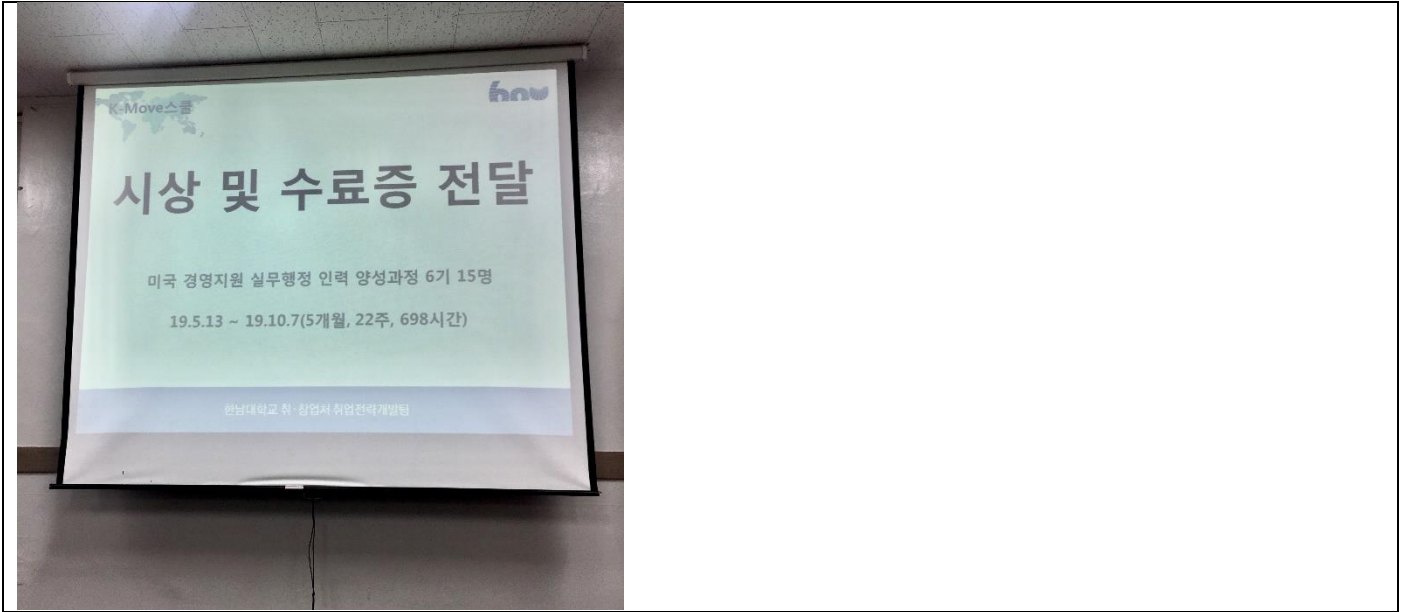
성명	정아린
대학/ 전공	한남대학교 / 무역학과
연수 과정명	미국 경영지원 실무행정 인력 양성과정 6 기
미국 입국일	2020. 01.16
근무 회사명(지역)/ 근무 포지션	Binex Line (LA) / import freightcashier

1. 인턴십 지원동기 및 ICN 을 알게 된 계기

저는 고등학생때부터 해외취업에 대해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후 1 년의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해외생활에 만족감을 느꼈고 학교에 복학한 후 제 전공으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학교내의 해외취업담당자분과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K-MOVE 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ICN 을 통해 미국으로 해외인턴을 올 수 있었습니다.

2. 최종 출국 전까지 진행 사항

K-MOVE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한 일은 영문, 한문 이력서 쓰기였습니다. 그 이력서로 오퍼를 받고 고용주 면접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제일 질문이 많고, 오퍼가 안 들어오지는 않을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컸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ICN 과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많이 하였고, 질문이 있을 때마다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더, 대사관 면접 전에 ICN 에서 대사관면접 준비와 출국 OT 를 해주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과정 하나하나 세세히 관리 해주시고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연락해 주시며 신경써주신 덕분에 무사히 미국에서 인턴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3.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제가 근무하고 있는 Binex line 은 무역 forwarding 회사이며 LA 본사 이외에 미국 여러 지역과 한국, 캐나다 , 멕시코에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턴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인턴과 한국으로 돌아가는 인턴들을 위해 Welcome party 와 Farewell party 를 진행합니다. 또한 회사내의 여러 행사들도 있어 다른 직원들과 친목도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import team 으로 import 업무와 freight cashier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Import 업무로는 Operator 분들이 handling 하시는 화물에 대한 여러 서류를 회사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와 저희 회사가 화물 handling 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check 를 만드는 freight cashier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학교에서 배우던 이론과 실무는 확실히 달라 처음엔 실수도 많고 어려웠지만 팀원들의 도움 덕분에 잘 적응하며 회사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Intern welcome party



Binex line 내부

4. 미국 생활

LA 지역은 여행이나 미국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Torrance 지역은 LA Downtown 보다 남쪽에 있고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Downtown 보다 비교적 조용하고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인 마트도 많고 큰 규모의 쇼핑센터도 있어 생활하기 좋은 동네입니다. 평일에는 퇴근하고 가까운 Redondo beach 나 공원으로 산책하러 가고, 주말에는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떨어진 San Diego 나 Santa Babara 라는 도시에 여행을 가거나 캠핑 장비를 빌려 Joshua tree 국립공원이나 Big bear 등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습니다. LA Downtown 말고도 갈 수 있는 곳이 다양하므로 매주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려고 노력 중입니다.



Hollywood Sign



Antelope Valley

5. 현지 생활 비용을 적어주세요.(1개월 기준)

내역	금액(달러 기준)
(예) 식비	300
(예) 교통비	200
(예) 차량유지비	0
(예) 집세 등	700
기타	300
합계	1500

6.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제가 해외취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을 벗어나 낯선 땅에서 혼자 일하며 생활하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자신감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문화, 직업, 언어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저에게 늘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사상과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재미를 느꼈고 무엇보다 틀에 박힌 저의 생각을 깨주는 순간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신의 견문이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7.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한국과 다른 언어, 문화이기는 하지만 너무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두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해외 생활에도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의지만 있다면 회사에 적응하는데에도 큰 무리 없이 미국 말고도 어느 나라든 즐거운 해외생활을 만끽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실한 후기 작성 감사합니다.

미국 취업을 통해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강*셉

: Bi*e**ne Corp 취업 1년 근무 후 한국 Bi*e**ne Corp 한국지사 정직원으로 발령

1) 미국 지원 동기:

미국은 세계 경제력 1 등의 나라이며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경영학을 배우며 평소 미국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있던 중 K-MOVE 라는 기회가 찾아왔고 난 운이 좋게도 그 기회를 잡게 되었다.

2) K-Move 스쿨 연수 과정:

영어교육은 실제 회사에서의 상황들을 가정하여 역할극도 해보고 미국에서 첫 인사 및 자기소개부터 email 쓰기까지 실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본적인 영어와 비즈니스 예절 및 문화 등도 함께 배운 뜻 깊은 시간이었다. 실제로 회사에 입사하여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다.

직무교육은 정말 다양한 강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강사님들의 story 를 듣기도 하고 현장 및 전문 지식들을 배우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희망하는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간접 경험들이 진로를 택하고 분야를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3) 기업처 인터뷰 과정 및 결과:

offer 를 받은 곳은 총 3 곳, 인터뷰를 보고 합격한 곳은 2 곳이었다. IT 관련 Mobile 업체와 Logistics 관련 Forwarding 업체. 두 분야 모두 나에겐 새롭고도 생소한 분야였다.

내가 입사하게 된 회사는 미국 LA 에 본사를 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전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Forwarding 회사이다. Forwarding 은 화주 대신에 선적 관련 일과 서류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서비스업이다.

4) 현지 근무와 생활:

사전 답사까지 한 회사의 첫 출근 날 버스의 배차간격이 30 분 이상인 줄도 몰랐던 난 지각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약 4KM 의 거리를 아침부터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은 채로 뛰었다. 물류에 대해서 백지와 같았던 내 머릿속을 생소한 무역용어들과 한국에서 가져간 두 권의 책으로 채워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공부한 것들을 사무실의 현장에서 접목시켜가며 직원들을 과도한 질문들로 괴롭혀 가며 물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갔다. 클라이막스는 4-7 월 약 세 달 간 체리 시즌에 맞춰 장기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미국의 농산물이 생산되어 검역 및 가공과정을 거쳐 트럭에 실려 옮겨지고 비행기로 한국까지 운송되는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발에 땀이 나게 뛰어가며 배운 것은 돈 주고도 배우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다. 현재는 Costco 팀에서 미국 및 캐나다에서 생산된 다양한 물건들을 한국 Costco 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해외취업을 생각한다면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이 반, 아니 그 이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각 개인에게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믿었으면 좋겠다. 두려워 말고 도전했으면 좋겠다. 혹여 전공분야가 아닌 곳으로 갈지라도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기하게도 생물학을 통해



배운 구조화와 메커니즘이 물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말하자면, 모든 일에 임할 때 이것이 내 소명이고 내 일인 것처럼 마음을 먹고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인턴이라는 직급에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욕심을 부려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분명히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크루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창고에서>

후기를 작성하며 인턴을 시작하던 당시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했을 때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꼈다. 최근, 운이 좋게 회사로부터 job offer 를 받아 3 월 20 일부로 한국지사로 출근을 할 예정이며 2-3 년 뒤 주재원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것을 꿈꾸고 있다.

2. 김*지

: Ch**h International, LLC 취업 1년 근무 후 귀국

1) 미국 J1 인턴십 지원동기

전공이 수학과 통계였지만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2년 동안 저에게 새 전공만큼 어려운 영어공부를 바닥부터 시작하여 실력을 쌓아나갔고, 미국 그리고 영어에 관심이 많았던 시기였기에 K-Move 스쿨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전공을 살려서 회계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얼마나 잘 버티고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자신감을 얻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영어선생님의 많은 조언들로 실수 없이 미국 인턴십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 근무회사 소개 및 업무내용

맡은 업무는 안경유통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입니다. 사무실은 10명으로 구성된 작은 회사이지만 한국계 미국인이신 매니저 밑에서 고객전화를 받는 태도부터 고객 하나하나 자료들을 관리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업무의 전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2달 정도 업무를 배우면서 항상 메모하고, 스스로 연습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틈틈히 직원들과 미국에 대한 생각, 문화, 생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이 모든 업무의 진행을 영어로 사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3) 미국생활

제가 사는 곳은 회사에서 걸어서 20분정도되는 곳에 한국인 노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변엔 학교들과 공원이 있는 살기좋은 동네였고, 회사가는 길에는 스페인들이 많은 시내지역으로 곳곳에는 미국 현지 식당 그리고 스페인 현지 마켓 등이 있어서 출근길마다 미국에 있다는 기분을 실감하곤 합니다.

평일엔 회사업무에 충실히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직원분들과 영어로 일상적인 일화부터 사회,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영어 관련한 도서와 뉴스 기사 읽기 등 회사에서 업무 중간에 남는 시간을 통해 충분 개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취미활동으로 요가를 좋아해서 주 1~2회 미국인들과 실내 또는 실외에서 꾸준히 체력을 관리하였습니다. 또 직장인이라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다양한 주제로 모여서 활동하는 웹사이트에 신청하고 "EXCHANGE LANGUAGE & CULTURE"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은 시간에는 성 패트릭 데이에 열리는 SAINT PATRICK'S DAY FESTIVAL 관람, 패션 또는 자연사 박물관 등 예술분야로 볼거리가 많은 뉴욕의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활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미국문화를 이해하는 배우는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4)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남녀 평등과 존중,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 받을 기회가 타국가보다 미국은 많다는 점, 일하는 환경은 다르지만 외국인 회사 또는 외국인들이 함께 일하는 곳에 취업한다면 융통성 있는 회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어느 부서든 배울 기회가 주어지고 편견 없이 저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5)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미국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밤낮으로 이력서 수정하고, 영어면접, 에이전시 면접, 각종 서류 준비 등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인턴십 참여 비용과 미국을 오기 위해 쓰이는 비용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본인이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생각하고, 실패하고 실수해도 다시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장*혁

: M* Global S**el, Inc 취업 후 근무 중

1) 미국 J1 인턴십 지원동기

유럽 배낭여행, 동남아시아 선교여행, 싱가포르 교환학생 등 해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내취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취업에 도전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해외취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 근무회사 소개 및 업무내용

제가 근무하는 곳은 철강 무역 회사로써 LA 에서 30 분 떨어져 있는 '세리토스' 라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 타이완, 중국, 미국 현지에서 철(Steel)을 수입해서 미국 국내(Domestic) 회사들에게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 파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RP 와 Quick Book(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부터 판매까지 무역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숫자들을 기록하고 차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주로 개인간이나 기업간에 Check(수표)으로 거래를 합니다. 수표라는 번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 내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돈을 주고 받을 때 수표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수표를 받아서 은행에 가지 않고 바로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우편으로 다른 회사에 보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기업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생소하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Invoice 나 Packing list 같은 무역에 필요한 서류들 또한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웨어 하우스에서 일손이 필요하면 웨어 하우스의 업무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외국인 동료의 비율이 높아서 업무 환경에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계파트의 한국인 상사분과 일을 주로 하지만 외국인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며 영어로 걸러오는 전화와 이메일도 처리하며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한지 1 달이 되어 많이 부족하고 업무를 배우고 있지만, 스스로가 더 노력한다면 영어 실력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3) 미국생활

평일에는 저녁 7 시쯤 집에 들어옵니다. 퇴근해서는 주로 한식을 해 먹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미국 대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 참여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미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분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며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4)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해외연수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만을 고집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경험들 등 제가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나와서 영화 감독을 하고 있는 친구,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서른이라는 나이에 대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친구 등 우리나라에서 대학, 직장, 결혼이라는 획일적으로 가도록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며 제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1년 뒤에 국내 취업을 도전하게 될 때에 지금 미국에서의 1년 동안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 분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한국에서만 살아본 사람이 만든 햄버거보다 미국에서 살아본 사람이 만든 햄버거를 먹을 것이다." 만약 해외 취업과 국내 취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감히 해외 취업에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겐 젊음이 있고 세상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5)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① '과감한 도전 정신' -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K-Move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심으로만 끝났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감하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시도하는 도전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해외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② '인내와 끈기' -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인내하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 국내 취업에 성공하는 친구들로 인해 흔들리기도 하고 인터뷰 오퍼가 들어오지 않거나 매칭이 안되어 포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있는 저는 너무나도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많은 경험, 여행 하시면서 인내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③ '해외로 눈을 돌려라.' - 국내 취업만을 고집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며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보면 압니다. "아, 이래서 해외로 나가라고 하는구나.."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저의 선택이 맞았고 제가 바라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며 제 스스로가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해외 취업 도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으로만 끝날 것인가, 직접 와서 경험하고 느낄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4. 이*현

: S*D & S***S 취업 후 근무 중

1) 미국 J1 인턴십 지원동기

저도 그저 4 년제 대학을 다니며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K-Move 스쿨을 알게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 젊은 20 대를 이렇게 흘려보내도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고민끝에 다시 오지 않을 후회없는 20 대를 보내기 위해 최종 결정,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근무회사 소개 및 업무내용

제가 근무하는 곳은 고철, 알루미늄을 미국 현지 기업에서 구매하여 재활용, recycling 을 목적으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직원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계시는 Korean American 이며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십니다. 회사는 크게 GTI(logistics), Steel, Aluminum, QC(Quality Control), Accounting, Sales 나뉘지며 저는 현재 Accounting 팀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며 인턴인 저도 정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이지만 재활용이라는 유망한 산업분야이고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회사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미국생활

개인적으로 처음 미국이란 국가를 생각했을 때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총기사고나 인종차별 등 한국에서는 없는 문제들이 걱정스러웠으나 막상 미국에 오니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여유로움이 있으며 좋은 날씨와 맑은 공기, 친절한 사람들 등 왜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는 주로 Meet-up 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며 비치발리볼, 농구, 언어교환 등 시간과 날씨가 맞는 날에는 항상 사람들을 만납니다. Meetup 에서 친구들을 만나 사귀어 주말에는 같이 다운타운이나 외곽으로 놀러가기도 합니다. 미국에 와서 다른 나라 친구들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근처 해변가나 Universal Studio, Disney Land, Griffith 천문대 등 실재 없이 여행을 다닙니다. 미국 여행은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의 삶은 한국에서의 삶과 달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해외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해외취업 특히 미국에서의 인턴 경험은 그저 스펙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생활은 교화학생이나 유학을 통해 올 수 있지만 해외 취업은 그저 놀고 즐기는 정도가 아닌 책임감을 부여받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값진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더 좋은 그리고 발전된 비즈니스 문화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5)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지 계획을 세우고 오면 더욱 효율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저 스펙 쌓기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다보면 해외취업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인생에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5. 이*호

: For*a* 취업 1년 근무 후 E2 비자 논의 중

1) 미국 J1 인턴십 지원동기

어학연수와 해외인턴을 비교해 봤을 때, 해외 인턴으로서 얻을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언어를 배우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 더 값비싼 해외에서 인턴으로서의 경험, 금전적인 문제, 직접적인 문화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고민없이 K-Move 스쿨에 지원했습니다.

2) 근무회사 소개 및 업무내용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기업은 포워딩 기업이며 그 중에서도 저는 수출을 맡고 있습니다.



위 첫 번째 사진은 회사 전경이고, 두번째 사진은 창고에서 수출하게 될 물건들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고 작업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입니다. "창고에서 물건들을 옮기고, 택배 상하차처럼 몸을 써야한 것 아니에요?"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바쁠 때는 제가 돕기도 합니다. :) 하지만 멕시코 직원 2명의 주업무가 창고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창고업무를 하는 일은 극히 드물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해하시는 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한국인은 얼마나 있어요?" 정말로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약 80%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 내에서는 대부분 한국어로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전화나 메일상은 대부분 영어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를 항상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창고직원이 멕시코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역시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제가 사무업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고객들과 이메일로 그들의 요구에 대해 답하며, 그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왔을 때는 모든 일들이 처음이라 쉽지가 않았습니.(지금도 조금은..?) 하지만 항상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하다보니 저에게는 그런 과정들이 힘들기보다는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장님을 포함한 직원분들 역시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업무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주셔서, 보다 일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었으며 회사에도 잘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정말 다른 점 중 하나는 퇴근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알아서 일을 마무리 하고 난 뒤 퇴근을 합니다. 한국 역시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기업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업내의 수직적인 문화와, 한국문화의 정, 공동체 의식이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이 없고 서로 말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할 것은 개인이 하고, 마무리하면 퇴근하고, 본인의 관계나 위치 역시 창고 직원이든 사무직원이든, 사장이든 인턴이든, 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3) 미국생활

집 문제가 고민되었지만 교육기간 중 선생님께서 집을 구하는 절차 및 노하우, 웹사이트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사관 인터뷰 합격 후 먼저 AIR BNB 를 이용하여 잠시 머무를 공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출근일 5 일전에 미국에 도착하여 휴대폰과 통장을 개통하고, 본격적으로 집찾기에 나섰었습니다. AIR BNB 에 거주하며 메일, 한국에서는 집주인과 개인적으로 할 수 없었던 문자와 전화, 그리고 미국에 있으니 집에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부대끼며 살고,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외국인 룸메이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IR BNB 에 약 2 주정도 거주하면서 집을 찾는데 남들보다 오랜시간을 투자했으며, 결국에는 Torrance 지역에서 외국인 룸메이트 2 명과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으며, 그것을 이루어 냈을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가 없을때는 퇴근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얼마전(미국 온지 2 달되는 시점) 면허를 취득하고, 중고차를 구매하여 운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맞으면 룸메들과 같이 보내려고 합니다. 주말에는 여기있는 동안 항상 어디라도 가보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곳들을 갔었습니다.



4) 해외취업을 추천하는 이유

해외인턴은 살면서 지금이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여행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직접와서 일해보고, 오랜기간동안 거주하면서 그 나라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업무와 여행 두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주는 Tip

본인이 무엇을 목표로 해외취업을 하고자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1 년이 정말 보람차고 좋았던 경험인 반면에, 또 다른 분들은 괜히 다녀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목표로 왔기때문에 정말로 만족하며 지내고 있고, 영어 역시 나름대로 많이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부딪히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목표를 위해 시도하고 도전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만 있는 기업에 가더라도 본인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어느정도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업무를 배우는 것 역시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혼자 집구하고, 차를 구하는 과정 역시 정말 많은 경험이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목표를 선정한 후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만약 그 기준에 부합하여 해외인턴으로 오게 된다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6. 도*우 / 하*현

: Hy*nd*i Dig*ec*, Inc. / 2명 모두 QC Assistant 근무 후 정규직(H1) 오피 제안 받음

Q: K-Move 스쿨을 추천하는 이유

A: 고된 학업을 끝내고 첫 직장에 들어선 후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의 신입사원들은 본인들이 배워 온 전공지식을 활용하지 않는다. 충분한 여가 시간과 삶의 질,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의 업무 활용을 고려한다면, 같은 시간에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의 제공이 우선시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경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은 해외 기업이며, 그러므로 해외 취업을 추천하고 싶다.



Q: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A: 회사는 미국에서 삼성 및 알카텔, 버라이즌이라는 회사의 핸드폰들을 재생산하는 회사였다. 지점별로 맡은 업무는 달랐고, 처음 배치된 지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을 재생산하는 곳이었다. 맡은 업무는 스마트폰의 메인보드 불량률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는 파트였고, 작업자들의 관리 감독 및 생산관리도 맡게 되었다. 이후 발령받은 지점에서는 테크니컬 서포트였는데,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유지 보수하는 일이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품질관리 또는 생산관리를 맡게 되었다.



Q: 해외취업 포부와 남기고픈 말

A: 외국 연수를 통해 느낀 부족함을 크게 채울 수 있었던 것이 지난 미국 J1 인턴십 과정이었다. 전공 지식과 영어 활용을 하며, 하루하루 맡은 업무를 하나가는 경험은 값지게 남아있다. ICN 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업무 이해와

준비를 제대로 한 이후 현지에서의 업무 경험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큰 능력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국가에 대한 언어가 어느 정도 숙달된 분이라면, 사용하는 프로그램, 전문 용어들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도록, 현지 언어로 익히고 가면, 조금 더 능률적인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A: 해외취업의 장점은, 한국에서 보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건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라면 한국 취업에 비해 나은 대우를 받는다. 꼭 좋은 대우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해외 기업에서의 업무 경험은 한국 기업에 취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업무 경험 뿐만 아니라 애초에 해외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추천한다.

7. 김*성

: C** Solution, Inc / Operation 취업 1년 근무 후 귀국

Q: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A: Ohio 주에 있는 C** Solution 은 NEC 의 공식 Service center 로서 동부, 중부, 서부 지역에 있는 NEC 고객들을 다룬다. 주된 업무는 Quality Control 업무를 맡았으며 수리가 끝난 TV 나 Monitor 의 최종 검사와 제품들의 포장 상태 등을 관리 해왔다. 또한 삼성 SDI 의 배터리 서비스업체로서 배터리 수리 업무도 맡았다. 회사 창립기념일의 날에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야외공원에 모여 맥주도 마시고 고기도 즐길 수 있는 화목한 회사생활을 했다.



[회사 창립 기념일]



[여가 생활]

Q: K-Move 스쿨을 추천하는 이유

A: 해외 취업의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젊은 시절 경험하는 해외 취업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도 넓히고 자신만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각박한 사회생활과 취업 걱정으로 성격도 급해지곤 했지만, 인턴십 기간 주변 사람들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차분한 마음을 가지며 여유를 즐길 줄 알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많지만, 미국인과 업무를 하다 보면 영어 울렁증도 극복하며 회화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이 경험이 스펙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Q: 해외취업 포부와 남기고픈 말

A: 미국인들과 일하는 환경이 주어졌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영어를 배우겠다는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고 지금은 영어 회화에 자신감이 생겼다. 영어에 욕심이 있다면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한다. 또한 업무에선 어떤 환경이든 처음 접하게 되면 모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배우려고 한다는 의지와 자기 자신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게 좋을 것이다.

8. 김*훈

: Ye**o Manufacturing, Inc / Electronics technician 취업 근무 중

Q: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A: 주로 RF matcher, RF generator 등을 수리하는 업무를 했다. 반도체 장비인데 학과에서 다뤘던 진공 장비와 Chamber 쪽은 실제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인 반면, 이들은 그러한 장비들과 연결되어 구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회사에서는 그러한 장비를 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직원의 이름을 달고 보증을 한다. 그러한 점에서 직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수리 완료 후 제품 테스트]



[퇴근 후 여가 생활]

Q: K-Move 스쿨을 추천하는 이유

A: 국내 취업과 비교할 때 해외 취업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정해진 좁은 세상만을 보고 정해진 좁은 선택만을 할 수 있는 국내 취업과는 달리,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해보며, 다른 환경을 경험하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다시 국내로 돌아가더라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도 있고, 전공과는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고 싶게 되었을 때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Q: 해외취업 포부와 남기고픈 말

A: 해외 취업을 하는데 대부분 영어를 잘해야 해외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외 취업을 하고 나면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최소한의 조건, 면접을 통과할 정도의 영어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언어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말은 그저 소통의 도구일 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능력이다. 인턴십은 그저

하나의 기회이며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목표가 생길 수도 있다.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선이 되어도 좋다. 두려워하지 말고 단지 하나의 기회이며 경험이 될 해외 취업을 도전해보길 바란다.

9. 김*지

: Si**a*ra*t, Inc / production QC Work

Q: 연수 기간 교육과 취업준비

A: K-move 스쿨 기간 동안 2/3 는 영어 수업을 받고, 1/3 은 직무 수업을 했다. 7 월 중순 시작한 3 기 과정은 8 월에 이력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오퍼를 받기 시작한 10 월 전까지 미국 법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원하는 산업군이나, 위치 등 개인 선호도에 대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오퍼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개인 선호도와 실제로 갈 수 있는 회사의 조율을 하며 진행되었다. 현재 다니는 회사의 오퍼는 1 월 10 일 받았고, 인터뷰는 이를 뒤 진행되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합격을 받았고, DS 서류 제출을 바로 뒤이어서 하고, 2 월 8 일 스폰서 인터뷰를 보고 합격을 받았다. 가는 지역에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했는데, ICN 측에 사정을 말씀 드리고, 최대한 비자 인터뷰를 빨리 보고 빨리 출국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사정에 맞추어 2 월에 비자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스케줄을 잘 잡아 주셨다. 결과적으로 출근일 기준 일주일 전에 미국에 입국해서 일주일 동안 집 구하고, 시차 적응까지 잘 할 수 있었다.

Q: 근무 회사 소개 및 업무 내용

A: 내가 다니는 회사는 Biomaterials 분야의 bone graft 를 위한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며 판매하는 회사이다. California 주 Fullerton 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회사이며, 현재 QC 엔지니어로 근무중이다. 제품을 생산하기 전, 생산하는 중, 생산한 후의 세 파트에서 제품의 품질을 테스트하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품질을 테스트하면서 SOP 와 여러 ISO Standard 를 계속 접할 수 있고, 품질 테스트는 약 7 가지 테스트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각 테스트에서 필요한 테스트 기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장비들을 다뤄보는 것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R&D 연구원 분들의 테스트를 도와드리면서 R&D 파트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직, 간접적으로 배우고도 있다. 사실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근무 전에는 걱정을 조금 했었는데 오히려 규모가 크지 않아서 각 부서에서 어떤 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더 많이 배우고 있다. 근무 환경은 cleanroom 과 펌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다. 품질 팀 특성상 다른 여러 팀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팀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속해 있는 품질

팀원들은 전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무의 90%는 영어로 진행되고 있다.



[근무하는 회사 건물]



[오피스]



[회사 제품]

Q: K-Move 스쿨을 추천하는 이유

A: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개구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우물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우물의 크기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크기가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더 큰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보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들을 두고 대개 보통 견문과 시야가 넓어진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넓어진 견문과 시야를 바탕으로 내 생각 또한 같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민이나 영주권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화에 녹아들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가 쉽지 않은데, 해외 취업을 한다면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점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기대하는 "해외 취업"이라는 것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의 기회가 될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힘든 기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험도 온전한 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믿는다.

Q: 해외취업 포부와 남기고픈 말

A: 보통 해외 취업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해외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두려움이 앞서서 그 두려움이 도전을 막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도 두려움이 앞서는 사람들 중 한 명이였지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 중에 하나는 "그 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지!"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해외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 했던 저에게 조금은 친근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는 말이었다.

나는 2달 가량은 차가 없이 버스를 타고 생활을 했고, 2달 이후에는 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을 구매하기 전과 후의 생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이 그나마 잘 되어 있어서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지만, 미국에 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싶다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준비하는 동안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서 미리 준비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 너무나 당연한 팁이지만, 한국에서 얼마나 영어를 공부하는지에 따라 들리는 것도, 말할 수 있는 것도, 그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것 또한 결정된다고 느끼고 있다. 물론 현지에 와서 부딪치며 배우는 것도 많지만, 준비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1 년 국비지원 K-Move 스쿨 지원 문의>

- ICN Group 한국지사(역삼동): Tel. 070-4848-1163/ 02-3445-4278 (미국 취업 및 비자 상세)